

칸트의 人格

哲學博士 李灌鎔

人格은 그 思想에도 차지려니와 特히 그 行動을 因하여 볼 것이며 그 實際生活에 求할 것이다. 그런데 『하이네』는 말하되 『칸트』의 傳記는 쓰기甚히 困難하니 그는 生活도 艱고 歷史도 艱했다 한다. 學者의 生活은 詩人이나 政治家의 그것에 比하여 單純한 것이다. 特히 『칸트』의 生活은 참으로 乾燥 無味하였다.

二百年 前의 오늘날부터 一八〇四年 二月 十二日까지 八十年동안을 德國의 東使 어느 구석에 있다는 『쾌니쓰쎄어록』市內에서 每日 機械와 가치 起居하며 學生들과 理論이나 캐고 冊이나 著述하며 四五人의 일홈업는 親友와 交際하다가 一米國의 獨立戰과 法國의 革命亂으로 全世界가 뒤집히는 時代이였건만 一自己의 出生地인 『괴』市 맞게 나가보지도 못하고 一生을 소리업시 보낸 學者이다. 그 外貌를 보아도 『웨테』나 『헤겔』에 比하면 남한테 신님 소리들을만 하다. 조고마한 體軀에 압호로 굵힌듯한 가슴 하관이 빠른 容貌 심히 弱한 音聲은 사람에게 懦弱하다는 印象을 주기 쉬웠다 한다. 그러나 그 生活이 이가치 單純하였다고 그의 人格까지 신님이랄 수는 업다. 偉大한 人格은 偉大한 藝術的 作品가태서 여러 方面으로 볼 수 잇스나 一面만 보고 그 偉大한 全體를 判定치 못할 것이다.

칸트의 生活은 그 哲學과 가치 嚴格한 原則에 依하여 된 徹底한 體系가 있다. 무엇이든지 體驗하는대로 一定한 原則에 依하여 分類하고 整頓하라 하였다. 그래서 自己 生活에 한 體裁를 주었다. 不規則하고 浮單한 生活은 凌蔑 하였다. 그 智識哲學에서 偶然性を 有한 經驗的 智識과 理性을 迷瞞하든 感覺을 棄却한 것 가치 그 實際 生活에서도 偶然한 것과 肉感的인 것은 盡力 하여 避하였다. 自然을 合目的 體系로 본 것 가치 그 生活도 一定한 原則으로 한 體系를 成하라 勉勵하였다. 感情보다 理性을 理論的 理性보다 實踐的 理性을 尙貴함은 『實踐的 理性의 上位』를 主張하든 그 道德哲學의 實現이라 하겠다. 『칸트』는 實로 그 敎訓과 가치 生活하고 그 生活과 가치 敎訓하였

다.

『칸트』는 自己 同族의 特性인 細密한 觀察力과 深奧한 思索力을 타고 나온 學者이었다. 分析的 精神만 잇느냐 하면 綜合的도 豊富하야 徹頭徹尾로 빈틈업시 된 哲學的 體系인 思想의 巨大한 建築物을 完成하였다. 單純히 批評家 뿐 아니요, 豊富한 想像力을 有한 創造的 天才이었다. 사람인 『칸트』는 甚히 親切하고 溫恭하였다 한다. 『헤어르더』의 말을 의지하건댄 『칸트』의 心情은 小兒의 그것과 가치 天眞의 態度가 잇고 모르는 사람을 容易히 信用하였다 하며 그 氣分은 네 가지 중 神經質에 갓가웠스나 그러나 藝術的 氣分은 볼 수 업섯다 한다. 小說의 主人公노릇 할 人格도 아니다 함이 世評이었다. 『理性限界 內의 宗教』을 發刊하고 富時의 普魯斯王 『빌헬름』 第二世의 『取消命令』을 맞엇을 때 反抗 한 번 업시 順從하였다. 尊嚴한 態度로 正當한 辨明書를 보내면서도 『다시는 宗教에 對하야 意見을 發布치 안겐다』는 뜻으로 順從하였다. 『칸트』는 『쾰른노』를 라인블과 『마르틴 루터』의 自由를 빼앗든 獄을 두려워한 것 아니지만 懦弱하다는 世評을 니르킨 責任을 질 수 밧게 업다. 그러나 이 社會의 評價는 알 수 업는 것이다. 내가 일즉이 伯林市 帝國國會 압혜 잇는 所謂 『戰勝路』라는 데서 彷徨 세 歷代帝王과 世々功臣의 石像이 羅立한 압흐로 지나다가 『빌헬름』 二世의 石像잇는 同一한 紀念塔에 『칸트』의 그것도 잇는 것을 보았다. 天質이 愚鈍하고 一生을 腐敗한 遊戯로 虛送하든 『빌헬름』은 人類의 思想 發展을 妨害하였건만 다만 한 王家에 出生하였다는 偶然한 事實을 因하야 거기 榮光스럽게 올라 안진 것이요, 『칸트』의 거기 잇는 것은 寒微한 馬鞍工의 家庭에 出生하였스나 自己의 天才와 精力으로 思想 나라의 王冠을 었은 까닭이다. 그런데 前者의 宏大한 石像은 차디 찬 大理石 썬이요, 『칸트』의 謙卑한 小石像에는 二百年 後 只今도 山脈이 썬는 듯하야 나는 생각하기를 宗教에 『루터』 藝術에 『쾰테』 哲學에 『칸트』는 우리로 하야금 德民族의 偉大한 精神을 永遠히 잇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다.(完)